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새 사무총장 윤건호 교수 임명



2011년 9월 1일자로 본 협회 사무총장에 윤건호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가 임명되었다. 협회의 사무총장은 가톨릭중

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이다. 그 동안 협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수교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사랑의 날개 6기' 2차 몽골 다르항 파견

학교보건시스템 구축과 다르항 제1병원 안과수술 및 안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외래와 의수족 지원



'사랑의 날개 6기' 2차 팀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31명의 단원과 현지통역 15명,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제15번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학교보건사업시범과 안과 백내장 및 익상편 수술, 절단 장애인 의수족 지원, 산부인과 진료 및 암 검사, 초음파 실시, 재활의학과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였다.

의공학팀과 행정팀은 의료봉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9월 1일 선발대로 입국하여 다르항 제1병원의 수술방 무영등(Operating-Surgical Light)과 Scrub 대 설치 및 백내장수술장비인 파코머신과 현미경 설치, 안과 외래에 Slit Lamp 설치, 그리고 신경과에

EEG(Electroencephalography) 설치를 하였다. 이로써 다르항 제1병원의 안과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추게 되었다.

9월 4일, KOICA 지원사업으로 몽골 다르항의 1차 지원대상인 10개 학교가 돈보스코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장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전달된 의료장비와 물품은 학교 양호실에 비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르항 제1병원에서는 9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안과 진료가 시작되었고 다음날부터는 백내장수술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5일 동안 464명의 안과 외래 환자를 보았으며 이중 백내장 수술 외 총 37건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또 산부인과 204명, 재활의학과 143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올 3월부터 진행된 SK이노베이션 후원 사업인 "몽골 다르항 시 신체장애인의 수족 지원 사업"의 2차 지원을 약속한 의수족 지원자 8명(A/S 1명, 신환 1명 포함)의 의수족을 지원하였다.

'사랑의 날개 6기' 3차 필리핀 나보타스 파견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사랑의 날개 6기' 3차 팀이 필리핀 나보타스에 파견되어 사랑을 전하고 왔다.

18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감염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

아청소년과의 5개 진료과에서 총 2,180명의 주민 진료를 하였다.

필리핀 나보타스 시 성로렌조성당을 중심으로 도시빈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보타스 지역은 근처에 쓰레기 산이 있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염된 강 옆에 판자집이나 다리 밑에서 정기적인 일자리 없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정기세미나 및 임시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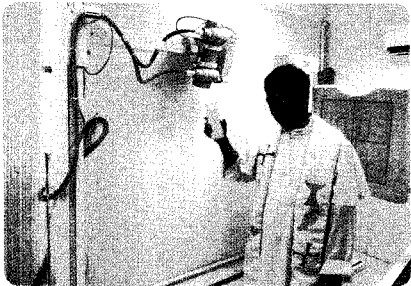
본 협회 정기세미나가 '가톨릭정신과 의료경영'의 주제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보건사목 담당이신 유수일 주교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기관 및 직능단체 회원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복음정신과 의료경영(유수일 주교 / 협회 담당),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활동보고(시마 히로지 / 일본 성마리아병원장), ▲행복한 경영, 아름다운 경영(김민영 / ㈜김민영 왕호떡 대표), ▲감성소통을 통한 FUN 경영(임영준 / 사람IN사람), ▲복음적 경영(박정운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 알차고 즐거운 강의들을 통해 어떻게 의료 경영 속에서 가톨릭 정신을 지켜나가고 복음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이사와 병원대표 33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11 임시총회와 각 병원 원목자 20명이 모인 가운데 원목본과위원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필리핀 나보타스 시 아동 및 모성 - 결핵 및 영양관리 사업’ 관련 보건소 내 X-RAY(Digital Radiography System / INNOVISION- DX) 설치 및 장비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단체 지원 사업 ‘필리핀 나보타스 시 아동 및 모성 - 결핵 및 영양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X-RAY(INNOVISION- DX) 기증을 하였다. X-ray 설치 장소로 결정된 Navotas Emergency & Lying-in Clinic 은 나보타스 시내 보건소 중 가장 큰 보건소로 시내에 유일한 공공 출산기관이자 X-ray가 설치된 장소로 기존 Minor Operation을 실시하던 방이다. 기관 내 두 명의 X-ray Technician도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나보타스 시장 John Rey Tiangco와 사업 담당자 City Health Office의 Administrative Officer인 Marianita T. Jionson와 현지 행정을 담당해 줄 Fr.Allan V. Lopez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X-ray 장비업체를 입찰 공고 후 선정했으며, 현지 답사에서 필리핀에 장비를

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성이나 사용량의 적합성을 판단했다. 설치 장소의 벽 공사 및 세관 통과 허가 문제 등으로 6개월이 걸렸으며 2주간의 제품준비기간, 출하검사(포장 전 검사) 및 패키징 후 선적(2주간), 제품 수송기간(선박, 1주일), 통관 및 수송의 1주일을 거쳐 보건소 내의 X-ray를 설치할 방의 전기 사양과 인터넷 등 시설 확인 후 10월 말 엔지니어가 필리핀에 도착하여 제품 반입 및 설치를 하였다. 이어 PACS 프로그램과 사용방법 및 장비교육과 실지운영테스트를 현지 담당자에게 전수하고 돌아왔다.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제24차 운영위원회 개최



올해로 24번째 교류를 맺고 있는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제24차 운영위원회’는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雪)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주관으로 일본 후쿠오카현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은 새로 부임한 부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성마리아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부산측 이사 3분을 위한 성마리아병원의 투어와, 이동의 협회장 신부의 일본어 미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저녁에 있던 ‘환영만찬회’에서는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雪)의 성모회가 2011년부터 매년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 운영위원회’ 개최일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해외의료봉사 후원금으로 100만 엔을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후원약정서에 서명한 후,

이동의 협회장 신부에게 현금 100만 엔과 후원약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동의 협회장 신부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해외의료봉사에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둘째 날은 23차 운영위원회 이후의 활동 보고 및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이동의 협회장 신부의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참석자 전원은 매년 뜻 깊은 자리를 통해 양국의 가톨릭기관으로써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올해의 운영위원회도 마무리 되었다.

해외의료봉사 평가보고회



11월 18일 오후 5시 30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VIP Room에서 2011년 3회 실시한 해외의료봉사(몽골 2회 / 필리핀 1회)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6차 세계대회 파견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6차 세계대회가 “Pastoral Care in Health at the Service of Life in the Light of the Magisterium of the Blessed John Paul II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의 교도권에 비추어 본 생명에 봉사하는 보건사목)”의 주제로 로마 바티칸 시 시노드홀에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성베드로 대성당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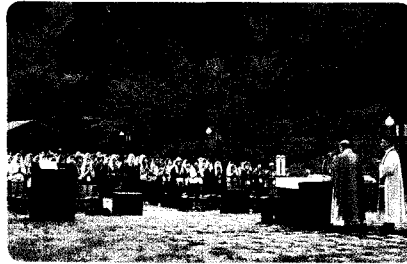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3일간 세계대회가 진행되며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알현이 계획되어 있다. 본 협회에서는 우수일주교님을 비롯한 5명이 파견된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2011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 전국피정이 인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박희옥 수녀, 지도신부 신대근) 주관으로 강화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원에서 전국 14개 교구에서 가톨릭간호사회 회원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냇가에 심겨 제 때에 열매를 내며 시들지 않은 나무와 같이(시편 1,3)”라는 주제로 간호사들이 주님의 말씀 맛들이기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강으로 박찬용 신부의 강의를 있었는데, 우리 간호사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막연히 ‘~하면 좋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으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다. 이어서 수련원 숲 속의 아름다운 가을의 밤하늘 아래 성체에 대한 경외심과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성체거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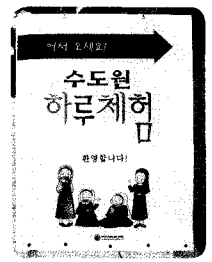
“가톨릭에 심겨 제 때에 열매를 내며 시들지 않은 나무의 교인” (시편 1, 3.)
2011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2011. 10. 08(화)~09(수) 인천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주관
주최: 인천교구가톨릭간호사회



있었고, 폐제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성시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천교구의 전적인 관심과 배려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참석한 회원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기도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정신철 주교의 방문과 이학노 몬시뇰께서 파견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강복을 주심으로 은총의 시간을 더하게 되었다. 참가한 간호사들은 “오랫만에 현장을 떠나 기도 분위기에서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은총이었고, 말씀을 통한 재충전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했다.

수도원 체험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에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월한도움의성모수도회에서 중앙이사, 감사들의 2011년 하반기 성지순례를 수도원체험으로 대치하여 실시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교구 회장단 회의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조건현 교수)는 2011년도 전국교구 회장단 연례회의를 11월 26일과 27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한다. 1년을 성찰하면서 2011년 사업보고와 2012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총회 관련 내용과 피정 스케줄 및 연차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곡자애병원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사랑으로 봉사할 의료인을 찾습니다.

꽃동네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말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열어 죽어가는 가장 가난한 분들을 모셔다 치료해 드리는 자선병원입니다. 의료인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을 돌보아 주실 파스한 손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 하느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싶은 의료인
1) 간호사, 간호조무사
· 간호과 : 파트타임 근무, 당직 근무만 하는 간호사도 환영
2) 정년을 하셨거나, 정년을 앞두고신 임상 각과 전문의(일반의도 환영)
3) 병원과 관련된 의료 전문직 종사자
연락처 : 인곡자애병원 043-879-0301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031-589-0302